



은행 (Positive)

4월 연체율: 하반기가 관건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2025년 4월 말 연체율은 0.57%(+9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은행업종 연체율은 아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근 1년 가까이 방향성이나 속도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중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합니다. 그 시점은 하반기 지표를 보면서 더듬어봐야 할 것입니다.

국내은행 4월 말 연체율 0.57%(+9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5년 4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7%(+9bp YoY)로 상승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89%(+19bp YoY), 자영업자 연체율은 0.74%(+13bp YoY)로 상승.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도 0.13%(+2bp YoY)로 소폭 상승함
- 가계 연체율도 0.43%(+3bp YoY)로 상승세를 지속. 신용 등 일반대출은 0.86%(+7bp YoY), 주택대출 연체율은 0.30%(+4bp YoY)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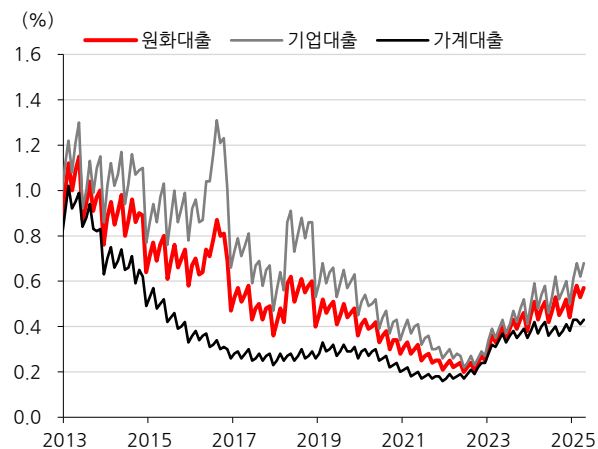
연체채권은 계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4월 말 13.7조원(+26% YoY)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 (그림7)
- 4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규모는 2.9조원으로 12% YoY 증가했고 (그림8) 월 중 정리(상·매각)된 연체채권은 1.7조원으로 잔액 대비 정리는 평균 4월보다 소폭 많았음 (그림9)
- 기업 (추정): 3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31% YoY로 추산. 자영업자 연체는 올들어 3조원 초중반에서 횡보. 다만 자영업자 대출 성장이 거의 멈췄기 때문에 연체를 개선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움 (그림11)
- 가계 (추정): 3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12% YoY로 추산. 신용대 연체잔액은 12개월째 10% 이하의 증가율로 안정화되었지만 이 또한 대출은 역성장 중이기 때문에 연체율 개선은 요원함. 주택대출 연체잔액은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데, 당사가 염려하는 5년 고정금리 주택대출의 리프라이싱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그림11)

하반기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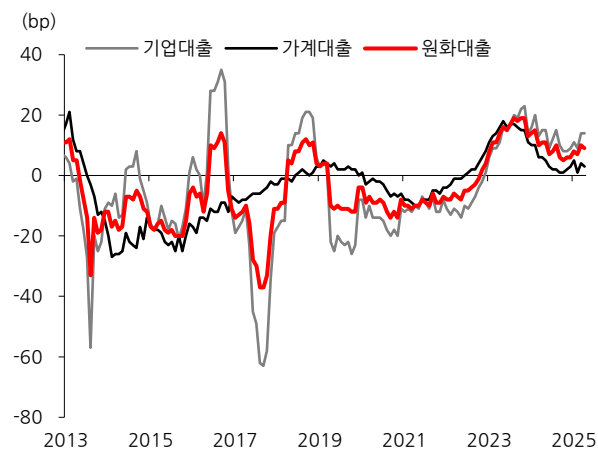
- 은행업종 연체율은 아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근 1년 가까이 방향성이나 속도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
- 지난 보고서에 언급한 대로, 현재는 연체율이 다시 반락하는 것도, 또는 상승 속도를 더 가속하는 것도 가능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판단. 세세한 월별 변동보다는 그 추이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하락은 자산건전성의 개선을, 경기 부진은 자산건전성의 악화를 야기.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이 연체율의 상승기를 연장시킬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의한 개선의 힘이 더 주효할 것이라고 판단
- 2025년 하반기 중 은행업종의 연체율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함. 그 시점은 하반기 지표를 보면서 더듬어봐야 할 것
- 변수는 법인 기업의 연체채권 증가 속도와, 5년 전 취급된 고정형 주택대출의 연체율 추이가 될 것으로 전망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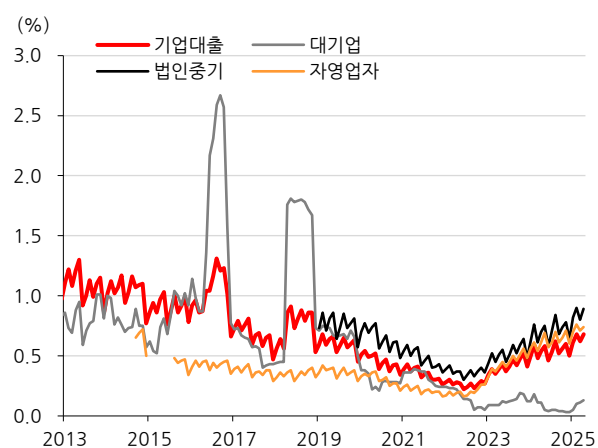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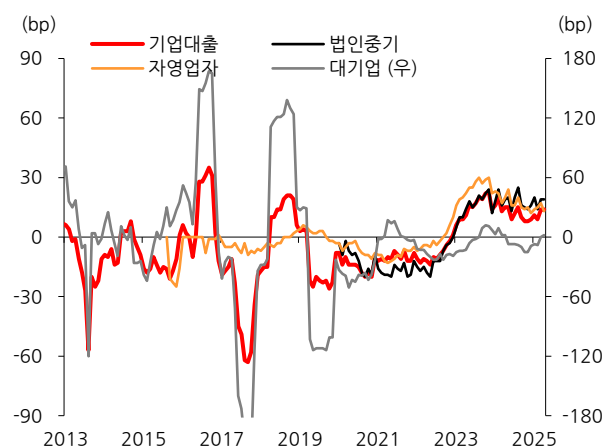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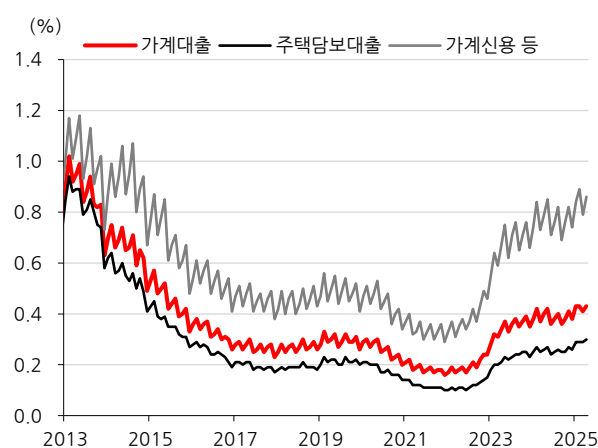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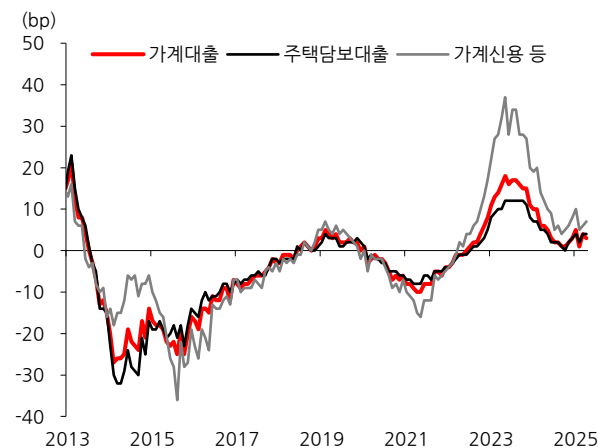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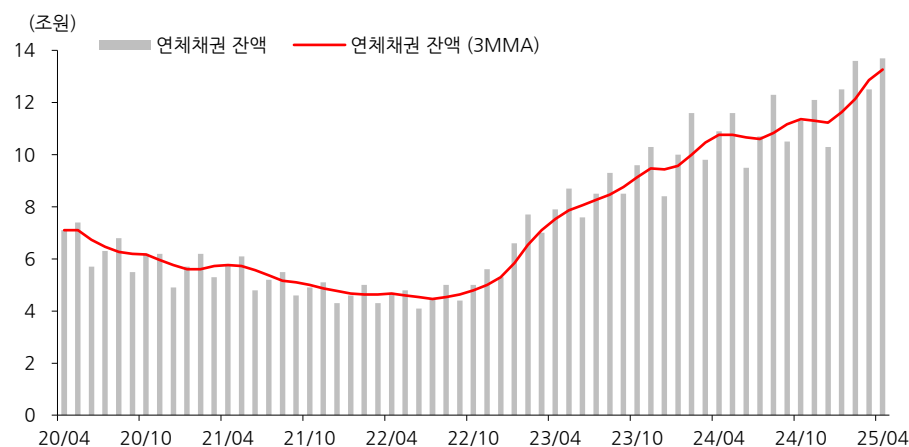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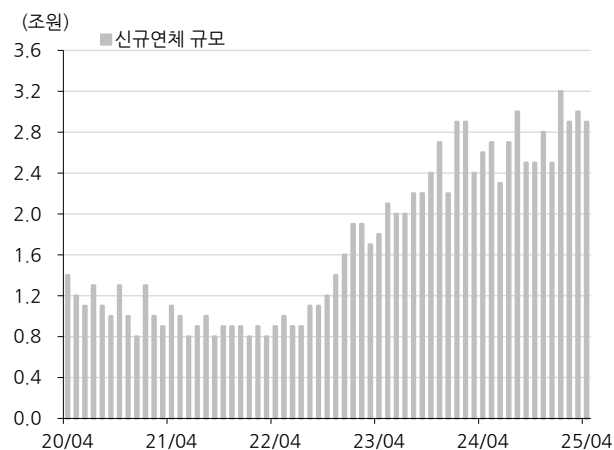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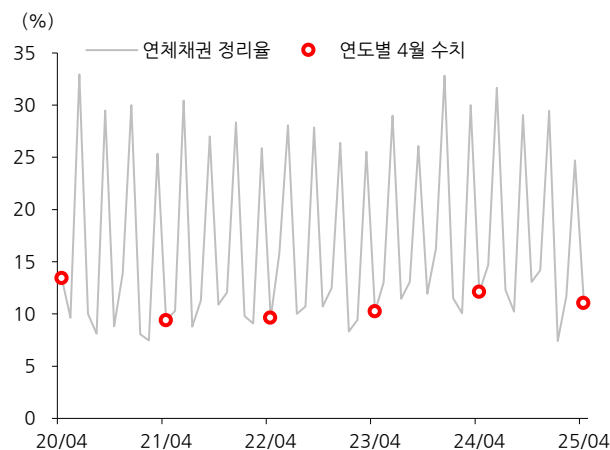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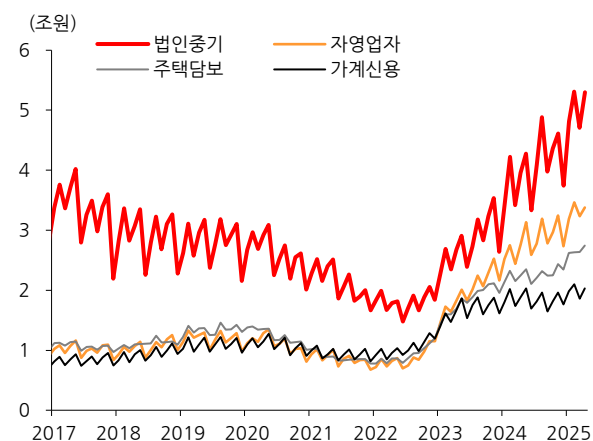
[그림9]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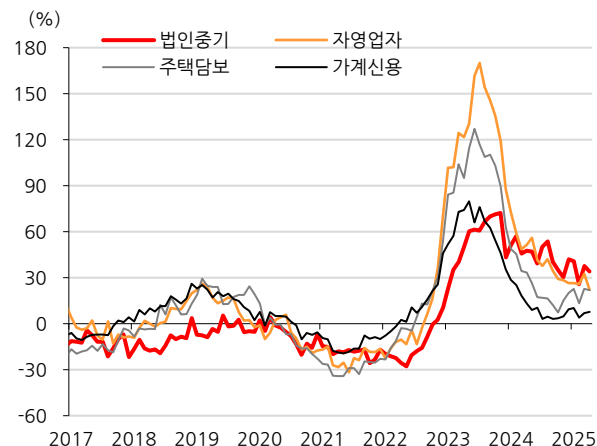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6월 30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9%	9.1%	0.0%	100.0%